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

홍미숙^{**}

〈차 례〉

1. 머리말
2. 에카르트의 생애와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의 한국 활동
3.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
4. 맺음말

[국문초록]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옥낙안(玉樂安): 1884~1974)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한국학의 기틀을 세운 학자이다.¹⁾ 그는 한글, 한국어와 문법, 문화와 문학, 교육, 종교와 철학, 음악과 미술 등 한국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였고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심이 기본이 되었고 한국인의 특성까지도 이해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의 개별적인 분야를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으로 연구하여 1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등의 성과로 남겨주었다. 에카르트가 한국학을 원활히 연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어와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풍부한 한자 지식을 갖춘 데 있다. 에카르트의 전반적인 한국학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보인다. 첫째,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독립적인 국가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며 독자적인 높은 경지의 문화와 예술을 지닌 나라이다. 셋째, 한국은 고대부터 일본에 문화와 예술을 전달해주었다. 이러한 시각과 주장은 그가 발표한 한국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 이 논문은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 전남대학교 강사

1) 에카르트(Eckardt)의 이름은 안드레아스(Andreas) 또는 안드레(Andre) 두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카르트의 제자이며 한글 학자인 알브레히트 후베(Albrecht Huwe 허배: 1950~) 박사께 2020년 7월 17일 이메일로 문의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다. 안드레아스(Andreas)라는 이름은 수도사로 활동할 때까지인 1928년 말까지 사용하였고 귀속한 후 부터는 안드레(Andre)로 사용하였다. 또한 에카르트의 고향인 바이에른주(Bayern)에서는 Andre가 Andreas의 애칭으로도 사용된다고도 알려주었다. 허 배 박사는 때로는 학자들이 에카르트의 이름을 프랑스 형식인 André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에카르트가 소속되었던 독일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의 창립 이념, 한국 진출과 더불어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20세기 초 독일에서 한국학 초석을 다진 에카르트의 연구 중 한글, 한국어와 문법, 한국문학사, 한국문화, 한국음악과 미술을 자세히 조명하여 한국학의 기초자료로서 의미와 가치를 논했다.

[주제어]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안드레 에카르트,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노르베르트 베버, 외솔 최현배, 『우리말본』, 『조선어교제문전』, 『한국문학사』, 『조선민담집: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국음악』, 『조선미술사』, 세키노 다다시

1. 머리말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옥낙안(玉樂安): 1884~1974)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한국학의 기틀을 세운 학자이다. 1909년 독일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 수도사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에카르트는 20여 년간 한국인을 위한 교육자로서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한국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는데 몰두하였다.²⁾ 그는 한국어와 문법, 한글과 한자, 문화와 문학, 교육, 종교와 철학, 음악과 미술 등 한국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였고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다.³⁾ 에카르트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독립적인 국가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며 독자적인 높은 경지의 문화와 예술을 지닌 나라이다. 셋째, 한국은 고대부터 일본에 문화와 예술을 전달해주었다. 이러한 시각과 주장은 그가 발표한 한국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에카르트가 한국학을 연구할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자를 동원하여 한국 문화와

2)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는 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 O.S.B의 한국 공식 명칭이다. 이 명칭은 한국 왜관 수도원의 오윤교 아브라함 신부님으로부터 2020년 6월 9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로 호칭하겠다.

3) 이은정·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독일어문학』 45권, 2009, 280쪽.

예술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학자들은 한국의 모든 문화와 예술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므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일괄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학을 연구했던 에카르트는 일본학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한국학 연구에 임하였음을 그의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에카르트의 연구 중심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심이 내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특성까지도 깊이 이해한 후 그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다양한 결과물로 남겨주었다. 에카르트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처음으로 한국학의 기초를 다진 선구자였기에 그의 한국학 연구 성과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 성과는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에카르트 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발표된 학위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2019년 홍미숙 박사학위 논문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2020년 공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20세기 초 독일인 선교사 안드레 에카르트의 한국문화 인식 연구:〈조선어교제문전〉·〈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를 중심으로』가 있을 뿐이다. 에카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행본 1권과 부분적으로 조명한 단행본 7권이 있다. 에카르트 연구를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보고서 3편 그리고 국내학술논문은 25편 정도가 있다.⁴⁾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를 다룬 연구는 이은정·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조현범의 『한말 일제하 천주교 선교사들의 문화선교활동과 조선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분야별 연구로는 권영필이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통사를 번역함과 동시에 다수의 논문으로 에카르트가 본 조선미술을 미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⁵⁾ 조효임은 『에카르트와 〈코리아심

4) 이 정보는 2021년 6월 27일 RISS를 통해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만을 모은 수치이다.

5) 조현범, 『한말 일제하 천주교 선교사들의 문화선교활동과 조선연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02; 권영필,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열화당, 2003; 권영필,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의 미술사관』, 『미술사학보』 5, 1992. 12, 5~31쪽; 권영필,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문예출판사, 2000, 71~112쪽이 있다. 또한 유준영, 『20세기 초 Nobert Webber의 한국미술품 수집과 비평』, 『미술사학보』 제9회, 1996. 12, 33~59쪽; 윤세진, 『두 개의 미술사, 하나의 시선 『에카르트의 조선

포니》」 논문을 통해 에카르트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 최석희는 에카르트의 민담 번역에 대한 연구와 진상범은 에카르트의 『조선문학사』를 분석하였다.⁶⁾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를 분야별로 저서를 통해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겠다. 한국학 분야 중 특히 한글, 한국어와 문법, 문학사, 음악과 미술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몰두하였던 한국학 연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보고자 한다.

2. 에카르트의 생애와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의 한국 활동

1)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생애

에카르트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84년부터 1909년까지로 에카르트가 독일에서 태어나서부터 25세 성인이 될 때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25세가 되었던 1909년부터 44세인 1928년 말까지 한국에서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의 수도사 신분으로 20여 년 동안 활동한 기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44세인 1928년 말 에카르트는 독일로 귀국하였고 귀속한 후 90세가 되던 1974년까지 한국학 학자로 활동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 뮌헨대학에서 에카르트는 철학, 종교학, 문화, 과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과 여러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였고 1905년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로 들어갔으며 1909년에 수도사 서품을 받았다. 수도사 서품을 받은 에카르트는 1909년 12월 28일 상트 오틸리엔

미술사, 세끼노 다다시 『조선미술사』, 『창작과 비평』 32, 창비, 2004 등이 있다.

6) 조효임, 「안드레 에카르트와 『코리아십포니』, 『음악과 민족』 8, 1994, 102쪽, 118; 최석희, 「한국문학의 독일어 번역-한국민담을 중심으로」, 『해세연구』 13, 한국해세 학회, 2005; 진상범, 『한·독문학의 비교문화적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2012.

연합회 수도사 신분으로서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1928년 말 까지 20여 년간 한국인을 위한 교육자로서 왕성히 활동하였고 동시에 학자로서 한국학에 대한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데 몰두하였다. 1928년 에카르트는 독일로 귀국하였고 귀속하였다. 귀속 후 그는 한국학 학자로서 1974년 생애를 마무리 할 때 까지 한국학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에카르트가 독일에서 한국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활동과 성과는 100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의 한국 진출 목적과 활동

세계 천주교사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은 천주교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발원한 유례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인들은 청나라 선교회를 통해 한국에 신부를 파견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 한국 천주교인의 요청에 응하여 1835년 프랑스 소속 선교회인 파리의방전교회(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de Paris)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파리의방전교회는 1909년까지 한국에서 유일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⁷⁾

파리의방전교회 조선교구장이었던 뫼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민덕효 1854~1933) 주교는 천주교 핍박이 끝난 후 1899년 고종과 교민조약을 체결하였다. 교민조약 후 한국 천주교인을 위해 고등교육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고학력 학자와 기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뫼텔 주교는 교육자를 구하고자 1908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일본

7) 파리의방전교회(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de Paris)는 세 번째로 들어온 프랑스 소속 선교사들 이었다. 그들은 183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의 유일한 선교사들이었으며 1909년 독일의 성 오티리엔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 1923년에는 미국의 메리놀회 선교사들이, 1933년에는 아일랜드계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멕시코계 과달루페회 선교사들이 진출함으로써 현재 4개의 외방선교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석우,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교회사 탐구』 II, 1991, 340~341쪽.

과 유럽에 있는 천주교 수도원을 찾아다니며 한국으로 수도사들을 파견해줄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⁸⁾ 그러던 중 로마 베네딕도회의 힐데브란트(Hildebrand de Hemptinne, 1849~1913) 원장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에서는 교육자 파견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은 후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으로 무작정 찾아온 뫼텔 주교는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 총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 천주교인들이 고등교육과 기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수도사 파견을 간곡히 요청하였다.⁹⁾

베버 총원장은 뫼텔 주교와 면담 후 그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1909년 2월 25일 보니파시오 사우어(Bonifatius Sauer, 1877~1950) 수도사와 도미니코 엔쇼프(Dominikus Enshoff, 1868~1939) 수도사를 선발대로 한국에 파견하였다.¹⁰⁾ 이들을 통해 한국에서 천주교 교육자 양성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후 베버 총원장은 1909년 12월 28일 안드레아스 에카르트를 위시한 4명의 수도사들을 1차로 한국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베버 총원장도 1911년 한국을 방문하였고 독일 귀국 후 191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를 출판하였다.¹¹⁾ 저서를 통해 베버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우리의 소망과 일치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이 한국 파견의 목적이 교육 활동을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¹²⁾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에게도 한국 진출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 이유는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가 창립된 목적과 이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8) Johannes Mahr, 「“어머니의 누룩” 한국과 중국 만주 지역의 베네딕도 선교사들 1909-1954년」, 『교회사연구』 33, 2009, 40~41쪽.

9) 선지훈,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한국교회사연구』 29, 2007, 77~78쪽.

10) 사우어 신부는 1909년에 한국에 도착한 후 1950년 북한 정권에 의해 순교할 때까지 한국에서 활동했다.

11) 이 책의 독일 원래 제목은 Norbert Weber,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Herdersche Verlagshandlung, 1915)이며 2012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박일영·장정란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 이 논문에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칭하겠다.

12)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9쪽.

실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는 1884년 안드레아스 암라인(Andreas Amrhein, 1844~1927) 신부에 의해 13번째 베네딕도회로 창설되었다. 암라인 신부가 설계한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는 새로운 선교지역을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기존에 있는 천주교 교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의 경우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가 기존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를 교육으로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의 수도사들은 주로 의사, 예술가, 교육자, 과학자를 비롯하여 수공업 학교와 농업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형성되었다.¹³⁾ 이들 수도사에게는 수도원에서의 공동체 생활, 교육자로서 활동과 더불어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시 되었다.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의 한국 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09년~1927년까지 서울 백동수도원에서 활동한 시기이다.¹⁴⁾ 두 번째는 1927년부터 1946년 연길수도원과 1949년 덕원수도원이 각각 북한정부에 의해 폐쇄되고 1952년 수도사들이 순교할 때까지이다.¹⁵⁾ 그리고 세 번째는 1952년 북한 정부를 피해 살아남은 한국 수도사들이 대구 주교관에 모여 왜관수도원을 건립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909년 한국으로 진출한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의 목적은 한국 천주교인들을 교육하여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⁶⁾ 한국인을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며 동시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연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백동수도원을 건립하였다. 한국 입국 직후 그들은 서울 백동(현 혜화동)

13) 백 플라치도(Placidius Berger), 『한국에서의 초기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침』, 『한국교회사논문집』 I, 1984, 773쪽;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6쪽.

14)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는 1920년부터 함경도 교구를 위한 이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1927년까지 백동수도원에서 일부 수도사들은 활동을 계속되었다.

15)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10쪽; 최석우, 앞의 논문, 360~361쪽; Johannes Mahr, 앞의 논문, 46~47쪽.

16) 성 오틸리엔 수도사들의 활동으로 천주교 중산층이 양성되었고 이 중산층이 마침내 천주교회를 산골에서 도시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였다. Johannes Mahr, 앞의 논문,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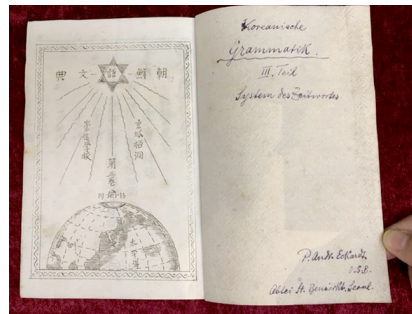
에 부지를 매입하여 백동수도원과 두 학교 설립을 병행하였다. 기술학교인 숭공학교(崇工學校)는 수도원보다 1년 앞선 1910년 9월 백동수도원 부지 내에 건립되었다. 한국인 교육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범대학교인 숭신학교(崇信學校)도 1911년 9월 16일 완공되었다.¹⁷⁾ 백동수도원 내에 기술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설립한 후 수도사들은 수도원 중심으로 교육자와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숭공학교에는 대·소목공부, 제차부, 자물쇠 제작부, 정밀 금속부, 페인트부, 양봉부, 제단부와 인쇄부 등의 교육과정이 있었다. 숭공학교는 기능 교육 외에 제도, 한문, 일본어, 미술, 수학, 교리 교육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였다.

사범대학인 숭신학교는 1911년 9월 16일에 개교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천주교 교육관 바탕 위에 유능한 한국 교사를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에카르트 교장을 맡았으며 교육과정에는 종교학, 교육학, 한국어, 일본어, 세계사,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었다.¹⁸⁾

에카르트는 숭신학교에서 한국어, 한국어 문법, 미술,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쳤다. 과학 교육 과정을 위해 에카르트는 물리학과, 화학 교과서를



[도1] 화학, 조선어문전 교과서,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홍미숙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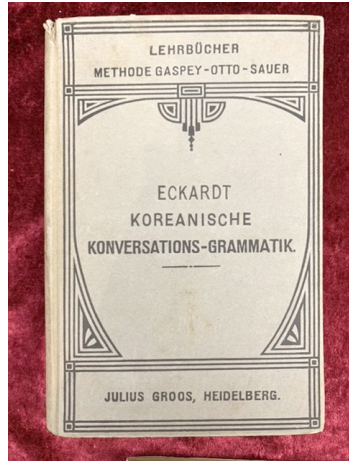


[도2] 『조선어문전』 교과서, 1913년,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홍미숙 촬영

17) 백동수도원, 원산수도원, 덕원수도원 등 여러 곳에서 에카르트와 많은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선교사들이 유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에카르트의 활동을 조명하였음을 밝힌다.

18) 오윤교(아브라함 신부,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성 베네딕도 서울 백동 수도원과 그 후 수도원들의 수도생활과 선교 활동』, 『동소문별곡』, 서울역사박물관, 2014, 143쪽.

각3권씩 한국어로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도 1).¹⁹⁾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 1913년에는 『조선어문전』을 에카르트가 직접 집필한 후 등사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도 2).²⁰⁾ 에카르트는 이 문법책을 기본으로 1923년 인쇄본인 『조선어교제문전(*koreanische Grammatik*)』을 독일어로 정식 출판하였다. 이 저서는 독일어로 출판된 최초로 한국어 문법책이다(도 3).



[도3] 『조선어문전』, 1923년,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홍미숙 촬영

그러나 숭신학교는 1913년 폐교되었다. 학교 폐교의 이유는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범교육을 독점하려는 조선 총독부의 교육 정책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이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들을 경계하며 위협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¹⁾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은 입국 시점인 1909년부터 한일합병을 목격하였고 일본 정부와 한국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은 일본의 적국이었다.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독일인 수도사들은 ‘비전투원 포로’로 일본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 ‘비전투원 포로’로 낙인이 찍혔던 수도사들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었던 시대적 비극에 동질감을 느꼈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를 이끌었던 베버 총원장의 신념은 한국의 문

19) 이 교과서들은 현재 독일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 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20) Andreas Eckardt, *koreanische Grammatik*, vol. 1-2, Vol. 3-4, 1913. 1913년의 『조선어문전』을 기본으로 에카르트는 1923년 한국에 문법책 1권과 별책부록의 『조선어 교제문전, 조선어교제』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하였다. Andreas Eckardt, *koreanische Grammatik*(Heidelberg: Julius Groos), 1923.

21) Albrecht Huwe, Rebecca Santelmann 역역, 『Andre Eckardt-eine biographische Skizze』, 『동서문화의 만남』, 청암 권혁만교수회갑 논문집, 1987, 589쪽.

화와 전통, 그리고 한국 고유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존중심을 갖춘 자세로 문화선교 활동에 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버와 동일한 신념은 모든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의 행보로도 증명이 된다. 수도사들은 한국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한국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저술 활동과 더불어 한국 풍습과 문화를 담은 사진과 기록 영화를 제작하였다.²²⁾ 베버 총원장 역시 수도사인 동시에 인류문화학자였으며 화가였다. 베버와 에카르트는 동료 학자로서도 서로 도움을 주었다. 베버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에카르트와 많은 문화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그들의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베버가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선교박물관에 한국관을 개관할 목적으로 한국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을 당시에도 에카르트는 베버의 조연자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유물 수집에 도움을 준 것을 선교박물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³⁾ 그리고 베버 총원장은 에카르트가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한국학 학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3.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

베버 총원장과 동료 수도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에카르트는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수도사와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한국학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에카르트가 한국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연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세계 문화 예술을 선도하였던 독일에서 받은 교육이 기본이 되었다. 에카르트는 독일 뮌헨대학에서 철학, 종교학, 문화, 과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어, 라틴어, 영어, 그리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와 한자에도 능통하였다.

에카르트가 일생을 통해 독일에서 한국학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던 근원

22) 박일영,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선교정책 연구」, 『종교연구』 67, 2012, 116쪽; 홍미숙,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금강산」, 『제3회 강원학대회』 I, 2020, 187쪽.

23) 자세한 내용은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제 III장 에카르트의 한국미술품 수집과 한국미술사관 참조.

은 한국인과 함께한 생활 속에서 한국의 민속, 종교, 문화와 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학의 본질을 이해한 것에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체득을 통해 에카르트는 한국학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에카르트가 한국학을 원활히 연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어와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풍부한 한자 지식을 갖춘 데 있다. 그는 한글, 한국어와 문법, 문학, 교육, 종교, 미술, 음악 등 한국학의 모든 분야에 통달하였고 1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등을 성과물로 남겼다. 중요한 것은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에서는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학의 세분화된 분야별 연구에서 한결같은 공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것은 한국문화를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로 인정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이다.²⁴⁾

1928년 말 독일로 귀국한 에카르트는 귀속하여 학자로서 한국학을 알리고자 하였을 당시 독일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한국학에 관련된 연구 자료는 거의 없었다.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로 치부되었고 관심 밖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카르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학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했다.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였고 학술 발표와 라디오 방송 통해 한국학을 알렸다. 그리고 뮌헨대학에서는 이미투의 뒤를 이어 한국학 교수로서 한국어와 한글을 널리 알렸다. 따라서 독일의 한국학 성립과 발전은 에카르트로부터 비롯되며 그를 한국학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²⁵⁾

1) 한글, 한국어와 문법

에카르트가 한국학 중 가장 애정을 많이 가졌던 분야는 한국어와 한글이

24)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한국의 독일 선교사·독일의 한국학자 안드레 에카르트』, 『한국연구재단(NRF)』, 2018,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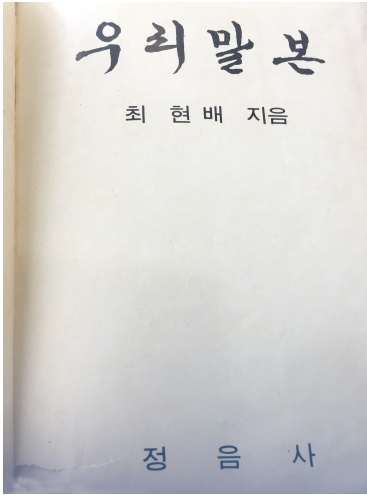
25) 이은정·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독일어문학』 45권, 2009, 280쪽.

었다. 그는 한국어와 문자의 발생부터 특성까지 모두 탐구하였다. 특히 1403년 태종시기부터 만들어진 활자 인쇄술과 1443년 세종대왕이 창조한 한글을 ‘문화적인 사건’으로 규명하였다. 1913년에는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열렸던 서적 전람회에 조선시대인 1403년에 만들어진 활자를 소개하며 조선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요하네스 구텐베르그(Johannes Gutenberg, 1397~1468)보다 50여년 앞섰다는 것을 알렸다. 1914년에는 『한국인의 언어와 글 쓰기 및 인쇄 기술 발명(Koreans Sprache und Schrift und Erfindung der Buchdruckerkunst)』 논문에도 1443년 세종대왕의 한글 발명과 구텐베르그보다 앞선 조선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한 글을 남겼다. 더 나아가 금속 활자 인쇄술은 한국역사상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거듭 주장하였다.²⁶⁾ 또한 독일 뮌헨대학에서 이미투크의 뒤를 이어 1957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학 교수로서 한국어와 한글을 강의하고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한글, 한국어와 문법과 관련된 논문과 책을 16권 이상을 출판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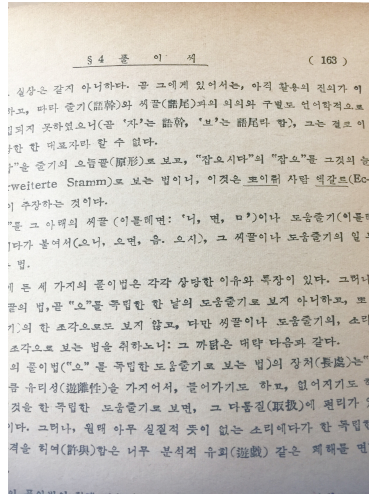
한국학의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에카르트는 동시대 활동하였던 한국인 한글 학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한글 학자들도 에카르트의 한글연구를 반겼으며 그들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에카르트의 한글연구를 소개하였다. 에카르트와 교류했던 한글학자는 외솔 최현배(1894~1970), 김윤경(1894~1969)과 정희준(1914~?) 등이 있다.

외솔 최현배는 일제강점기 한글학자이며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 작업에 참여하였다. 1929년에는 국어의 통일된 표기법을 정리한 『우리말본』을 저술하였다. 『우리말본』의 ‘4. 풀이 씨’ 부분에서 최현배는 에카르트의 관점도 소개하였다.(도4, 도5) 최현배는 『우리말본』에 에카르트의 한글연구를

26) Eckardt, Andreas, “Koreans Sprache und Schrift und Erfindung der Buchdruckerkunst”, *Geist des Ostens*, München: Verlag des Ostens, 1914; Andreas Eckardt(옥낙안), 앞의 기고문(1958), 80쪽. 에카르트가 한국학을 연구할 당시에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1377년 세계 최고의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은 1972년 박병선 박사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었다. 현재 이 『불조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파리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도4]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50.



[도5] 최현배, 『우리말본』, 163쪽.

포함시킴으로서 그의 한글연구를 인정하였고 동시대 한글학자 반열에 올려 놓았다.²⁷⁾ 그리고 1960년 출판된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박사 75세 생일 기념 논문집』에 『고대의 한·일관계』라는 논문을 기고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에카르트와 최현배의 인연은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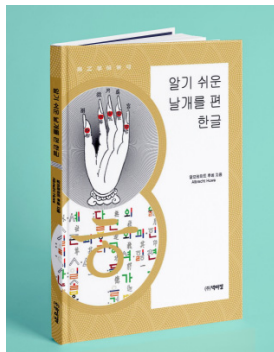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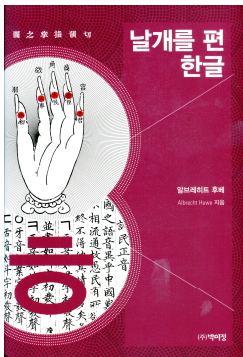
연구자는 한글학자인 최현배와 에카르트의 인연이 시작된 시점을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서 일 것을 한 가능성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에카르트가 1923년부터 1928년까지 한국에서 일본 경도제국대학을 오가며 강의를 하였고 최현배 또한 1922년부터 1925년 동안 경동제국대학에서 유학하였는데 두 사람에게 이 시기가 겹친다. 당시 에카르트는 한국어와 한글을 열정적으로 탐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학자인 최현배와 인연이 닿았을 것이다. 그리고 1960년의 최현배가 기고한 논문을 근거로 이 두 학자의 인연이

27)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62, 163쪽; 옥낙안(Andreas Eckardt), 『제2의 조국 한국어여 빛나라!』, 『신태양』 69, 1958, 79~80쪽 참조.

28) Tschö Hyonbä(최현배),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Japan in alter Zeit", *Koreanica: Festschrift Professor Dr. Andre Eckardt Zum 75. Geburtstag*, (Baden · Baden: A. Lutzeyer), 1960, 23~31쪽.

에카르트가 독일로 귀국한 후에도 꾸준히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1월 『조선문자급어학사』와 1948년 『나라말본』, 『중등말본』 등을 편찬한 한글연구운동가인 김윤경 또한 「한국어의 구조」라는 논문을 『안드레 아스 에카르트 박사 75세 생일 기념 논문집』에 기고하여 에카르트와의 오랜 인연을 확인시켜준다.²⁹⁾ 한국 근대 국어 학자이자 조선시대 고어 연구자인 정희준은 1938년 「에카르트와 한글」이란 논문을 통해 에카르트의 한글 연구와 열정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³⁰⁾ 이러하듯 에카르트의 한글, 한국어와 문법연구에 대한 열정은 동시대 한국 한글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카르트를 한글학자로서도 인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카르트가 한국어와 한글,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탐구하였던 시기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비롯한 한국학 연구를 말살시키고자 한 시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카르트는 끊임없이 한글, 한국어와 문법을 연구하였고 저술로도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었다. 한국인 한글 학자들은 이러한 에카르트의 행보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³¹⁾ 에카르트는 1957년부터 197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일 뮌헨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유럽 학생들에게 강의를



왼쪽: [도6] 알브레히트 후베 (Albrecht Huwe 허베), 『날개를 편 한글』, 박이정 출판사, 2019.

오른쪽: [도7] 알브레히트 후베 (Albrecht Huwe 허베), 『알기 쉬운 날개를 편 한글』, 박이정 출판사, 2021, 사진: 알브레히트 후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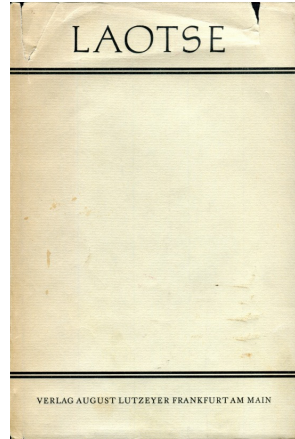
29) Kim Yungyong(김윤경), “Zum Aufbau der Koreanischen Sprache”, *Koreanica: Festschrift Professor Dr. Andre Eckardt Zum 75.* (Baden · Baden: A. Lutzeyer), 1960, 61~76쪽.

30) 정희준, 「에카르트와 한글」, 『한글학회』 제6권 제8호, 1938. 9.

31)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12~14쪽.

하였고 제자들을 배출했다는 점에 또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카르트의 제자이며 한글 학자인 알브레히트 후베(Albrecht Huwe 허베: 1950~)박사가 한국과 독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도 6, 7).

에카르트는 한자에 관해서도 한국에서 일상 생활을 할 때 평범한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3,000자에서 5,000자의 한자를 알아야 하고 지식인이 되려면 최소한 8,000자에서 1만자의 한자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카르트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한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서당에 찾아가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곧 「천자문」과 「소학」을 모두 습득하였다.³²⁾ 한국 학자들에게 공자, 맹자와 도덕경도 배웠다. 이 시기에 배운 도덕경을 바탕으로 독일 귀국 후 독일어로 『위대한 지혜의 책; 노자(Das Buch von der grossen Weisheit : Laotse)』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도 8).³³⁾ 그리고 한자를 열심히 숙지한 결과 에카르트의 글을 읽은 독자들은 글쓴이가 유럽인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³⁴⁾ 한자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에카르트는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薛聰, 655~?)이 창안한 이두가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³⁵⁾ 에카르트는 한자를 공부한



[도8] 『노자』, Andreas Eckardt, LAOTSE, 1950.

32) Andreas Eckardt 저, 이기숙 역, 앞의 책, 86쪽.

33) Andreas Eckardt(옥낙안), 앞의 기고문, 78쪽. 에카르트에게 노자와 도덕경을 가르친 김봉제는 186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32년에 사망하였다. 오래된 학자집안 출신인 김봉제는 사서삼경을 공부한 학자이며 에카르트에게 많은 설화도 소개해준 인물이다. 최석희, 「한국 문학의 독일어 번역-한국민담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13, 2005, 주석27 재인용. 1950년 에카르트는 김봉제에게 배운 도덕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Andreas Eckardt, *Das Buch von der grossen Weisheit: Laotse*, Frankfurt am Main: Verlag August Lutzeyer, 1950. 그리고 [표1]에서 도덕경 관련 저술들을 참조하면 되겠다.

34) Andreas Eckardt 저, 이기숙 역, 앞의 책, 86~87쪽 참조.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에카르트가 직접 서술하여 숭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던 『조선어문법(koreanische Grammatik)』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에카르트가 한자를 배우고자 하였던 열정을 베버의 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Norbert Weber 저, 박일영·장정란 역, 앞의 책, 281쪽, 주석8 재인용.

후 1913년~1914년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에서 출판되는 선교 잡지인 『표교지(Missionsblätter)』에 이동용 한자교육 교재인 천자문의 유래에 관한 설화 “Die koreanisch-chinesische Fibel”(한국-천자문 입문서)를 소개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250개의 시구절의 천자문 중 아홉 구절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하듯 에카르트에 풍부한 한자 지식은 한국학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2) 한국문화



[도9] Andreas Eckardt, *Kultur der Nationen, Korea* 『한국의 문화』, 1970.

에카르트는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저서를 출판하였다. 1960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Korea Geschichte und Kultur*)』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였다.³⁷⁾ 그리고 1970년에는 『한국의 문화(*Kultur der Nationen, Korea*)』를 출판하여 빙하기와 홍수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 전반적인 한국역사와 문화 예술을 알렸다.(도 9) 『한국의 문화』는 총 310 페이지로 구성된 저서이며 34점의 그림과 사진이 삽입되었다. 저서는 총 9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는 <매우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날씨와 산천

초목, 동물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광물과 수입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2장에

35) Andreas Eckardt, *Zauber Koreanischer Poesie*, Bayerischer: Vortrag Rundfunk, 1960; 진상범, 『한·독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2012, 186~187쪽.

36) Andreas Eckardt, “Die koreanisch-chinesische Fibel”, *Missionsblätter* XVIII, München: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13~14, 172~175쪽; 조현범, 앞의 논문, 2009. 12, 189쪽;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15쪽.

37) Andreas Eckardt, *Korea Geschichte und Kultur*, Baden-Baden: Verlagsbuchhandlung Heinrich Blömer, 1960.

서는 빙하기와 홍수를 시작으로 구석기 시대의 손도끼 문화부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리 유물 등을 조명하였다. 그 후 한국의 역사를 고조선, 삼한시대,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20세기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3장에는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는 고속도로, 게임과 스포츠, 관광 여행, 사회 문제와 교통 문제 등이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한국농업, 어업, 공장, 상업과 산업, 과수원, 삼림지와 한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등을 알렸다. 6장에서는 한국의 과학과 문화를 소개하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어와 한글, 한국의 교육제도, 문학, 신문, 신문사, 라디오, 도덕과 철학, 천문학, 지리와 역사, 한약, 이두, 조선시대 금속 활자, 도자기와 미술 등이 포함되었다. 7장에서는 한국음악과 무용을 소개하였으며 8장에서는 한국에 분포된 종교로 도교, 유교, 샤머니즘,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태교 등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리고 9장은 발전된 1970년대의 대한민국을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의 표지로는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유물인 <기마 인물형 도기>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문화예술을 청동시대의 북방식 고인돌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의 기록, 그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유럽독자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³⁸⁾ 에카르트가 한국문화와 역사를 고인돌부터 시작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동시대 일본학자인 세키노 다다시는 낙랑고분을 한국 역사와 문화의 시작점으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카르트는 일본학자와 함께 낙랑고분 발굴에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로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은 『조선미술사』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 두 학자의 시각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저서에 삽입된 도판에는 신라시대의 <기마 인물형 도기>, <첨성대>, <불

38) Andreas Eckardt, *Kultur der Nationen, Korea*, Nürnberg: Glock und Lutz, 1972.

국사), <석굴암 사천왕>, <금제 허리띠>와 <미륵삼존불> 중 본존불의 사진 등이 삽입되었다. 백제시대 유물로는 부여에서 출토된 <귀면문전>을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의 묘>, <경천사십층석탑>과 <청자투각칠보무늬향로> 등의 사진을 포함시켰다. 조선시대의 금속활자와 세종대왕의 한글 창시를 알리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직접 서술한 후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문화』에 에카르트가 사용한 한국 문화재와 유물 사진들은 20세기 초 에카르트가 찍은 사진들이 주를 이루며, 『조선미술사』 도판과도 동일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의 소장 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많다. 예를 들어 <경천사십층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소장되어있다. 그러나 저서에 삽입된 사진에는 20세기 초의 모습으로 경복궁 근정전 앞에 위치한 <경천사십층석탑> 모습이 보이고 있어 사진 한 장으로 석탑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인 신라시대 <석조미륵삼존불> 중 본존불이 있다. 저서에 삽입한 본존불의 사진은 발굴시 당시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발굴 당시의 사진에는 본존불의 코가 소실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본존불의 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존불의 코는 발굴 후 유실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재미있는 것은 본존불의 코의 유무 상태에 따라서 본존불의 이미지가 사뭇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문화』에는 서울에 위치한 불교 사찰 모습과 사찰내부의 전경도 사진을 통해 소개하였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서울 봉은사 벽화 중 은자이자 <산신령>³⁹⁾ 그림과 <한국의 별의신>으로 설명한 실화성(室火星)이 쓰여 있는 그림도 삽입하여 한국의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불교 승려의 모습과 함께 온돌 굴뚝의 사진을 삽입하였는데, 에카르트는 한국건축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며 저서를 통해 온돌의 기능과 장점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유물 소개 이외에 조선후기와 일제식민지시기에 활약하였던 가야금

39) <은자도>는 『조선미술사』의 <도판 311>으로도 삽입하였다. Andreas Eckardt 저, 권영필 역, 앞의 책, 267쪽.

의 대가인 명완벽(明完璧, 1842~1929)도 소개하였다. 명완벽은 1861년 장악원전악에 임명된 후 1908년 국악사를 거쳐 1915년에는 제 3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을 맡은 인물이다.⁴⁰⁾ 명완벽이 의관을 갖추고 의자에 앉은 모습과 함께 ‘명완벽, 한국전통 음악 연주자’로 소개하였다. 에카르트는 명완벽에게도 한국 전통 악기와 음악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전통 악단이 연주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포함시켜 한국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당시 서울도시의 발전된 모습, 궁궐 옆에 세워진 높은 빌딩, 경부고속도로, 공장의 모습 등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에카르트의 『한국의 문화』 저서에는 많은 한국유물이 포함되어있어 독자들이 한 눈에 다양한 한국문화와 예술을 볼 수 있다. 에카르트는 『한국의 문화』에 삽입된 사진들의 출처를 자신이 소장하였던 사진과 더불어 한국정보부(Informationsbüro Seoul), 한국국립박물관, 일본인 3인, 한국인 2인, 독일인 2인, 상트 오틸리엔의 카니시우스 쿨겔젠(Canisius Kügelgen 구결근, 1884~1964) 수도사와 베버 총원장로부터 제 공받았다고 밝히고 있다.⁴¹⁾

3) 한국문학사: 시문학과 민담

한국의 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1968년 에카르트는 『한국문학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를 출판하였다(도 10). 『한국문학사』에서는 한국문학을 시대적인 특성과 장르로 구분하여 소개하였고 세계문학적인 관점에서 세심히 고찰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다.⁴²⁾ 『한국문학사』를 통해 에카르트는 삼국시대 중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20세기까지 전 시기를 분류하고 각 시대의 본질과 개성이 다른 점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오랜 시간동안 각 시대가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참조.

41)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33~34쪽.

42)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W. Kohlhammer Verlag, 1968.



[도10]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 『한국문학사』, 1968.

술잡지에 실었다. 1959년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 1960년에는 『일본: 역사와 문화』, 1968년에는 『베트남: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저서를 출판할 만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⁴⁴⁾ 그 결과 에카르트는 한국시문학을 중국의 『도덕경』과 일본의 하이쿠의 시 형식과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한국문화는 중국과 일본과도 다른 고유한 문화이며 동아시아에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다. 한국인의 생활 관습과 예술적인 창의성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확연히 다른 점도 강조하였는데 그가 일제강점기에 내린 이러한 결론은 현재 세계 속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의 K-문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0년 에카르트는 한국문화사를 소개하기 위해 독일 바이에른주(Bayern)의 방송국에서 ‘한국시의 매력(Zauber Koreanischer Poesie)’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강연을 기본으로 한 『한국시의 매력』을 출판하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신라가 1000년, 고려 500년 그리고 조선이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⁴³⁾

한국문학사 중 시문학을 소개함에 있어 에카르트는 동아시아 문화, 시학의 본질과 정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예를 들어 보면 1950년 로마에서 ‘동아시아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1956년에는 『일본의 예술-시』라는 논문을 학

43) 삼국시대 중 에카르트는 신라시대 문학에 집중한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라시대를 논함에 있어 통일신라 이전과 이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1000년의 신라시대로 논하였다.

44) Andreas Eckardt, “Kunstwerk der japan. Lyrik”, *Univeritas*, 1956; Andreas Eckardt, *China: Geschichte und Kultur*, Baden-Baden: Verlagsbuchhandlung Heinrich Blömer, 1959; Andreas Eckardt, *Japan: Geschichte und Kultur*, Bonn: Baden-Baden, 1960; Andreas Eckardt, *Vietnam: Geschichte und Kultur*, Eurobuch-Verlag, 1968.

기도 했다.⁴⁵⁾ 한국문화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카르트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역사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를 근거로 하여 소개하였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와 신라가 건립되는 과정을 소개하였고, 통일신라를 이룩한 김유신의 역할과 역사적인 배경을 조명하며 삼국이 통일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고려와 조선의 역사도 조명하였다. 한국문학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소개한 후 이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대의 문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문학사를 볼 때 시 예술은 전 시기에 걸쳐 일반 백성부터 왕까지 모든 계층에서 주목받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국시대 중 신라시대 대표적인 문학가로 무열왕의 둘째아들인 김인문(金仁問, 629~694), 신라 3대 문장가인 강수(强首, ?~692), 최치원(崔致遠, 857~?)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태백과 두보가 활동하였고 중국시문학이 최고봉에 이르렀던 당나라에서 유학하였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최치원은 중국에서 18세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신라로 돌아와 고구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소설과 시를 편집하여 <사슴의 동굴>, <아침하늘의 들>, <봉덕사의 중> 등 담시가 포함된 문집도 발간하였다는 것도 밝혔다. 또한 신라시대의 문학은 화랑도의 정신을 지닌 젊은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문학이 주를 이룬다고 알렸다. 특히 신라 경덕왕 시대의 대표적인 화랑도 정신을 찬양하는 충담(忠談)의 <화랑 길보찬양>도 소개하였다.

에카르트는 한국불교 시문학의 중요성도 알렸다. 한국불교는 중국을 통해 4세기에 들어온 후 한반도의 많은 예술가들은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많은 불교사찰이 건립이 되었고 불교예술을 꽃피웠으며 불교 문학도 함께 발전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불교문학 중 에카르트는 고려시대 승려인 균여(均如: 923~973)를 조명하였다. 균여는 15세에 불교에 입문하여 해인사에 화엄교과에 속하며 귀법사에서 입적하였다는 것을 전했다. 균여는 한국 민중에게 불교시문학을 알리기 위해 <보현십원가(普賢

45) Andreas Eckardt, *Zauber Koreanischer Poesie*, Bayerischer: Vortrag Rundfunk, 1960.

十願歌》라는 11수의 향가를 지은 것도 알려졌다. <보현십원가>의 11가지 시 속에는 부처에 대한 공경, 봉헌, 죄에 대한 뉘우침, 도덕의 찬양, 부처의 목좌(Thron), 기도, 지상에서의 조화, 생명이 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공헌을 찬양의 내용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고려시대를 설명하며 에카르트는 세계인에게 ‘고려’를 처음 알린 사람은 중국 원나라에서 활동하였던 프란치스코회(Franciscan Order) 소속 수도사인 루브르크(W. Rubruck)인 것을 밝혔다. 루브르크는 보고서에 “카울레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전했는데 “카울레”는 중국식으로 발음한 고려이다. “카울레”는 이후 Korea로 불렸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고려시대 시문학에 대해 에카르트는 한국어가 지니고 있는 언어의 울리는 음색의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룬 것이 보인다는 예리한 지적을 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인은 자연을 사랑하는 민족이며 자연에서 찾아낸 수천 가지의 색깔처럼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수천 개의 시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민족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려시대에는 1150년경부터 문학의 형식이 시에서 서사문학으로 발전된 점도 밝혔다. 더불어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부터 전해진 유령의 이야기들도 많이 출간되었고 특히 중국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와 같은 작품들도 출판되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장가로는 궁정시, 민속시, 그리고 불교시로 구분 지었다. 그 중 궁정시에는 궁정의 분위기, 귀족들의 생활태도 그리고 호화찬란한 삶에 대한 희열을 담았다고 보았다. 에카르트가 본 고려시대의 민속시는 흥겹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고 해석 하였다. 구전으로 내려온 12개의 시는 대부분 사랑을 칭송하는 정서가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청산별곡(靑山別曲)>과 같은 작품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찬양하는 것이며 도교의 세계관이 잘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려가요 중에서는 <쌍화집>을 소개하며 참다운 남녀의 사랑을 예찬하며 인간의 고통은 끝이 있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유교적 윤리가 강조되었던 조선시대보다 문학적인 표현과 사회적 분위기도 더욱 자유로웠던 사실까지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⁴⁶⁾

조선시대에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외부와 단절하였으며 그 결과 옛 풍습, 문화와 예술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서양에서 조선은 조용한 은둔의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⁴⁷⁾ 에카르트는 조선시대 문학사를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세 가지 갈래로 해석하였다. 향가의 문학이 고대 형식에서 발전되었다는 설, 장가의 시 형식에서 시 형식을 변화하지 않았다는 설, 장가의 형식에서 나와서 시 형식을 새롭게 변형하여 발전되었다는 설도 언급할 정도로 한국 시조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조명하며 자연으로 귀환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을 추구하는 시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 한글 창제, 임진왜란까지의 문학, 가사 문학과 시조의 융성기, 사회와 논쟁시기로 인해서 1590년에서 1884년까지의 문학에 끼친 영향, 서사문학, 시, 시의 강조, 우울한 시, 애국에 대한 시, 왕족의 시 세계, 실학의 발전과 과정, 신화의 서사예술, 소설과 단편 소설의 황금기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1824년부터 1909년의 문학, 1909년부터 1933년까지 문학, 1933년 이후의 문학, 운동주의 시, 김소월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한용운의 불교적이며 인간적 사랑을 노래한 시를 독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볼 때 에카르트는 한국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전 시기를 아우르며 소개하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⁴⁸⁾

한국인의 세계관이 잘 담겨있는 민담을 에카르트는 한국 입국 초기부터 수집하였고 독일어로 가장 많이 번역하고 소개하였다. 중요한 것은 에카르트의 민담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한국민족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 인지를 설명하였으며 서사적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곁들여

46) 진상범, 앞의 책, 187~190쪽.

47) 진상범, 앞의 책, 188쪽.

48) 진상범, 앞의 책, 186~192쪽 참조;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170~171쪽.

저있는 민담집이다.⁴⁹⁾ 에카르트는 출판된 저서를 통해 자신에게 한자와 민담, 전설, 동화 등을 전해준 학자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에카르트에게 도움을 준 한국 학자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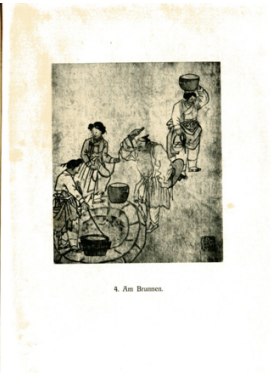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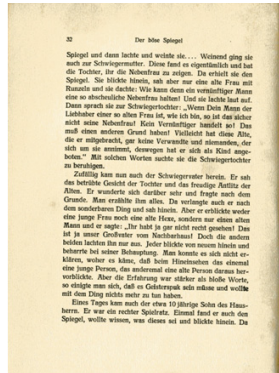
김봉제(1865~1932)	오래된 서울 학자집안 출신, 사서삼경을 공부한 한학자로 에카르트에게 노자와 도덕경, 한자와 민담을 들려주었다. 『인삼: 한국의 전설과 동화』에 나오는 산삼에 얽힌 8편의 이야기는 모두 김봉제가 전해준 이야기들이다.
오창식(1872~1938)	대구 양반가에서 태어나 고서에 능했으며 시에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 그는 한때 <경향신문>의 기자로 일했으며 주간지인 <잡지>에도 일했다. 에카르트에게 한국민담, 신화를 소개해주었다. 일본어에도 능통하였으며 에카르트가 숭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교사 세미나를 통해 에카르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엽조(1864~1928)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한문에 능통하였고 <동아일보>에 일련의 단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살이던 늦은 나이에 서울에서 통역학교를 다녔으며(1904~1908), 프랑스 교사 마르테(Martel) 밑에서 프랑스어를 배워 프랑스어에 능통한 유엽조는 에카르트가 한국에 온 초창기 1911년 무렵 통역관으로 많은 공을 세웠다.
권계량(1885~1934)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중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월간지에 여러편의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에카르트에게 한국전래동화를 소개하여 주었다. 에카르트의 『오동나무 밑에서』에 수록된 우화들은 에카르트가 각지에 흩어진 한국전래동화를 모으기 시작한 1922년과 1924년에 사적으로 그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다.
강도영신부 (1863~1929)	1883년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 유학 후 1892년 귀국. 1896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수원 미리내 성당에서 34년 사목 후 1929년 선종. 에카르트에게 한자와 민담, 전설 등을 소개해 주었다. 에카르트의 저서에는 강 신부로 기록했다. 에카르트와 강신부에 대한 기록은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⁵¹⁾

에카르트는 1913년부터 1914년까지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선교 잡지인 『표교지』에 한국 민담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1923년 출판된 『조선어문법』에도 24편의 민담을 소개하였다. 이들 책의 내용은 대부분 신화 민담, 우화가 있고 시, 전설과 한국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 민담의 내용은 한국인의 불교적 보은 사상과 호국 불교의 신앙을 표현한 이야기들과 유교적인 덕목을 권

49) 최석희, 앞의 논문, 376, 384쪽.

50) 에카르트에게 도움을 준 학자에 대한 연구는 최석희, 앞의 논문, 381~382쪽, 주석 27~30 재인용: 육낙안, 앞의 기고문, 78~79쪽.

51) Norbert Weber, 박일영·장정란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앞의 책, 280~281쪽.



왼쪽: [도11] 『조선민담집: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aktusan*, 1928.
 오른쪽: [도12]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aktusan* 『조선민담집: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1928.

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⁵²⁾ 특히 에카르트르의 민담 저서에는 한국미술을 포함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1928년에 『조선민담집: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aktusan*)』(도 11)가 있다. 모두 38편의 민담 중 신화, 동화와 우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민담집에는 김홍도와 성협의 풍속화를 삽입하였고 해당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도 12) 유럽 독자들은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해 입체적으로 한국 민담에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저서 속지에는 에카르트르의 그림이 있는데 풍류를 즐기는 조선 선비의 모습을 담았다. 이 그림이 흥



[도13] Andreas Eckardt, 『오동나무 아래에서』 표지, 1950. 에카르트르 그림.

52) 진상범, 앞의 책, 170~172쪽.

미로운 것은 조선 선비들과 서양인 선비들이 함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서양인의 모습을 한 선비는 에카르트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⁵³⁾

1950년에는 『오동나무 밑에서(Unter dem Odong-baum, Koreanische Sagen und Märchen)』(도 13)를 출판하였다. 이 저서에는 신화, 동화, 우화, 설화 등 총 43편이 수록되었다. 저서 표지에는 에카르트가 직접 그린 주작들이 보이며 주작의 모습은 강서대묘와 중묘에서 보이는 주작들과 일치하여 매우 흥미롭다. 강서대묘와 중묘 발굴에 참여하였던 에카르트가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사신도 중 주작을 모티프로 저서 표지로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1955년에는 『인삼: 한국의 전설과 동화(Die Ginsengwurzel: Koreanische Sagen Volkserzahlungen und Marchen)』를 출판하였다.⁵⁴⁾ 이 저서에는 김봉제에게 들은 8편의 신화, 유염조에게 전해들은 12편의 동화, 오창식에게 들은 설화 6편 등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오창식의 사진을 저서 속지에 삽입하였다. 따라서 에카르트에게 도움을 주었던 학자 중 오창식을 사진으로 실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이상과 같이 에카르트는 『한국문학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문학을 독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에카르트는 일찍이 한국문학과 문화의 우수함을 독일 문화권에 소개함으로써 독일인들에게 한국문화와 문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남겨주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할 부분이다.⁵⁵⁾

53) 연구자는 본 논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림의 원화를 발견했다. 에카르트는 베버가 한국에서 모아 만든 『검제정선화첩』 중 〈행단고슬도〉를 재해석하여 그려 본인의 저서에 삽입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54)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äkusan*, München: Missionsblätter, St. Ottilien, 1928; Andreas Eckardt, *Unter dem Odong-baum, Koreanische Sagen und Märchen*, Frankfurt/Main: Lutzeyer, 1950; Andreas Eckardt, *Die Ginsengwurzel: Koreanische Sagen Volkserzahlungen und Marchen*, Eisenach: Erich-Röth Verlag,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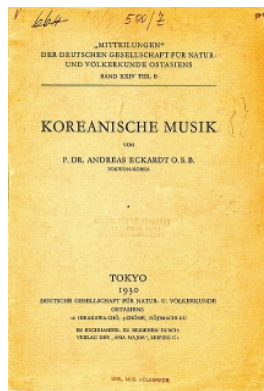
55) 진상범, 「독일에 있어서 한국민담 및 전설 독일어 번역과 창작을 통한 한국문화수용양상 고찰」, 『예술인문사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권 1호, 2016, 409쪽.

4) 한국음악

에카르트가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처음 경험하게 된 곳은 공자제(孔子祭)이었다. 그는 1910년 3월 동대문 문묘에서 시행되었던 공자제례의식에 참가하였고 그곳에서 한국 악기를 처음 보았다. 한국 전통 음악도 처음 들었으며 전통 무용도 처음 보았다. 에카르트는 “한국악기로 된 국악을 듣고 춤을 보고 들은 함창은 나의 흥미를 몹시 끌었기에 나는 한국음악의 역사적 발전을 탐구하여 후에 『한국음악』을 독일어와 영어로 출판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⁵⁶⁾

1930년 에카르트가 독일어로 출판한 『한국음악(Koreanische Musik)』(도 14)은 세계 최초 한국 전통 가락을 소개한 저서이다. 1931년에는 영어로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의 음악, 가락과 춤(Musik, Lied, Tanz in Korea)』을 통해 한국음악 부분은 보완하고 한국의 전통 무용도 함께 소개하였다.⁵⁷⁾ 에카르트는 저서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가 아닌 자주독립적인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유럽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⁵⁸⁾

『한국음악』에는 한국 가락 9곡과 「방아타령」을 편곡하여 피아노 반주를 붙이고 수록하였다. 1935년에는 『한국음악』을 개정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8년 『한국음악과 춤』을 통하여 한국 무용을 처음으로 세계에 소개하기도 했다. 저서에는 총 30곡의 한국음악이 소개되었고 문묘 제례악, 종묘 제례악 그리고 한국의 민요뿐 아니라 20세기 초에 불리던 신곡들도 수록되어



[도 14] 『한국음악』, 독일어본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usik,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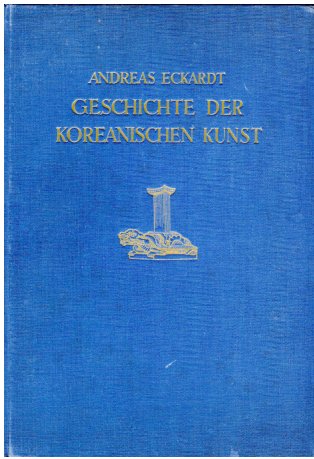
56) Andreas Eckardt(옥낙안), 앞의 기고문, 1958, 80쪽.

57)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usik*, Tokyo: Deutsche Gesellschaft für Natur- u. Volkerkunde Osnstiens, 1930; Andreas Eckardt, *Korean Music*, London: K. W. Hiersemann, 1931; Andreas Eckardt, *Musik, Lied, Tanz in Korea*, Bonn: Bouvier, 1968.

58) 조효임, 「안드레 에카르트와 「코리아십포니」」, 『음악과 민족』 8, 1994, 102, 118쪽.

있다. 『한국음악과 춤』 제5장에는 에카르트가 채보한 악곡이 30곡이나 수록되었고 이 악곡들은 에카르트가 말년에 작곡하여 한국에 헌정한 21번째 교향곡 〈코리아 심포니, Korea-Sinfoni, op. 21〉의 기본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5) 한국미술



[도15] 『조선미술사』 독일어본,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1929.

1929년 독일에서 출판된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는 세계 최초 한국미술사 통사이다.(도 15) 또한 영국에서 영어판으로 *History of Korean Art*를 출판하며 영어권 독자들에게도 한국미술의 존재를 알렸다. 에카르트가 『조선미술사』를 출판하기 전 한국미술사는 한국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으며 유럽에도 한국미술사 전체를 아우르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⁵⁹⁾ 따라서 1909년부터 시작된 에카르트의 한국미술 연구 성과로 1929년 한국미술사 통사를 출판한 것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⁶⁰⁾

에카르트가 『조선미술사』를 출판하였던 시기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있었고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일본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문화와 예술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문화재와 유물을 훼손시켰고 자국 학자를 동원해 한국미술은 독립적이지 못하며 모두 중국미술의 아류인 것으로 규정하고 정립해 나아갔다. 이러한 시점에 에카르트가 일본학자들과는 정반대인 관점으로 서술한 『조선미술사』를 유럽에 소개한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조선미술사』를 통해 에카르트는 한국은 독립적인 나라이며 문화와 예술

59) 에카르트 이전 한국학자와 유럽학자들에 의한 한국미술 연구는 홍미숙, 2019, 46~50쪽 참조.

60) 홍미숙, 2019, 56쪽.

이 높은 경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미술에도 상당한 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고대 시기부터 일본에 문화예술을 전해주었다는 것도 거듭 상기시켰다. 이에 더하여 에카르트는 조선도공의 후예들에 의해 세워진 일본 도자기 생산지 12 곳을 방문하였고 조사한 결과 당시에 많은 조선 도공의 후예가 일본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에게 많은 부를 안겨주고 있는 일본도자기 생산의 원류가 조선 도공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국미술을 에카르트는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확대하였으며 동아시아미술, 그리고 세계미술 속에서 한국미술에 대한 위치를 학문적으로 풀어나갔다. 한국미술과 중앙아시아 예술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에카르트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연구된 동양미술관련 연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앙아시아 탐험가와 연구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와 연구 자료를 섭렵하였다. 특히 독일학자인 르 코그(Albert von Le Coq, 1860~1930), 스웨덴 학자인 스벤 헤딘(Sven Anders Hedin, 1865~1952) 그리고 독일인 학자 필히너(Filchner, Wilhelm, 1877~1957)와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였으며,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⁶¹⁾ 에카르트는 고구려 고분 건축 양식과 중앙아시아 건축 양식의 연결고리도 처음으로 찾아내었는데 이 주장은 최근 이루어진 한국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일례로 에카르트는 고구려 고분의 천장부분에서 중앙아시아 건축 양식과 연결 지었으며, 고분의 천장 형식은 아프카니스탄과 그 주변 농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라고 강조하였다.⁶²⁾ 정석배는 2017년 저서를 통해 고구려 고분의 천장 부분에서 평행고임천장과 삼각고임천장 그리고 팔각고임천장이 유라시아 대륙의 폭넓은 지역에서 관찰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고구려의 고임식 천장이 서역의 문화와 관련 있다고도 판단하였다. 삼각고임 천장은 인도-파키스탄-네팔의 지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천장은 중앙아시아 지역 중 아프카니스탄에

61) Andreas Eckardt 저, 이기숙 역,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살림, 2010, 66~67쪽 참조.

62) Andreas Eckardt 저, 권영필 역, 앞의 책, 94쪽.

집중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에카르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⁶³⁾

한국미술을 연구하기 위해 에카르트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20여 년 동안 전국에 분포된 한국 유물을 찾아 실견하며 조사하였다. 천주교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사찰을 300여 곳 넘게 방문하였으며 자료를 모아 불교예술을 탐구하였다. 특히 금강산은 두 번씩이나 방문하였고 유점사에서는 며칠씩 머무르며 불교미술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 에카르트가 남긴 유점사에 관련된 기록은 현존하지 않는 유점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에카르트는 불교미술 안에서 건축, 회화, 와 불상을 분리하여 조명하였으며 공예와 석조미술은 장을 나누어 상세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에카르트는 낙랑고분과 고구려고분 발굴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에카르트가 당시 세계미술사를 주도하던 독일 뮌헨대학에서 근현대적 방식으로 고고학과 미술사를 공부했음을 인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는 적국 출신이었던 독일 상트 오틀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을 ‘비전투원 포로’ 신분으로 구분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에카르트가 ‘비전투원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에게 근현대적인 미술사와 고고학 발굴 방법을 전수시키려는 목적으로 고분 발굴 현장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에카르트는 낙랑과 고구려 고분 발굴에 참여하였고 고분 발굴 자료와 내용을 독일에 논문으로 소개도하였다. 특히 1926년 독일 『동아시아지(Ostasiatische zeitschrift)』에 논문 기고를 통하여 강서대묘의 고분벽화 존재를 유럽에 최초로 알리기도 하였다.⁶⁴⁾ 고구려 고분을 발굴할 당시 에카르트는 현장에서 본 벽화와 고분 건축 등 많은 스케치와 수채화 그림으로 그려 자료를 모았고 자신의 그림을 저서

63) 고구려고분 건축과 중앙아시아 건축에 대한 연구내용은 홍미숙, 앞의 논문, 2019, 4장 한국의 고분 참조;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고구려 고분 연구와 성과: 강서대묘와 쌍영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52, 2019; 정석배의 8인, 『한국 문화 원류와 알타이 신문화 벨트 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8~20쪽.

64) 에카르트는 강서대묘와 중묘 고분벽화를 유럽에 최초로 알렸다. Andreas Eckardt, “Das Große Grab König Yangwon’s: Ein Beitrag zur koreanischen Kunstgeschichte”, in: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13, Berlin und Leipzig: Ostasiatische zeitschrift, 1926.

도판으로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고구려 고분 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에카르트의 그림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도 포함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에카르트는 우현리 강서대묘·중묘·소묘 발굴 현장에서 벽화 장식부분을 수채화로 그린 후 저서 도판으로 사용하였고 동일한 그림이 『조선고적도보』에도 실렸다는 사실을 독일어와 영어판 저서에 명시하였다. 영어판인 *History of Korean Art*의 도판 Plate III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Ornaments in the U-hyunnni tombs(Kokuryo), From a water-colour sketch by the author.(cp. further the Chosen Kofun-heki-kwa-shifu).” 즉 “고구려 우현리 고분에서 저자가 수채화로 그린 그림(『조선고적도보』에 동일한 그림이 삽입되었다.)”는 내용이다. 에카르트가 언급한 ‘우현리 고분벽화 장식부분’을 『조선고적도보』 제2권, No. 642, 643, 6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사실이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에카르트가 『조선미술사』에 삽입한 도판, 특히 고구려 고분 그림들은 모두 『조선고적도보』 또는 일본 학자들의 것을 사용하였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기 때문이다.⁶⁵⁾ 또한 에카르트는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이왕가박물관 설립에도 참여하여 한국 전 시기의 유물을 다양하게 접하며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에카르트는 한국미술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미술의 특징과 미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조선미술사』에서 특히 석조미술 연구가 중요한 것은 한국미술에 당시 회화나 도자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던 석조미술의 중요성을 알린 것에 있다. 에카르트 한반도 전역에서 실견하고 조사한 수백기의 석조미술을 석탑, 승탑, 석등과 비석으로 구분하여 조명하였다. 그 중 50기가 넘는 스케치와 사진을 도판으로 삽입하여 소개하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65) Andreas Eckardt, *History of Korean Art*, London: Edward Goldston, 1929, Plate III. 한국이 번역본의 도판에는 『조선고적도보』에 동일한 그림이 삽입되었다는 설명이 생략되었다. 에카르트는 회고록에도 『조선고적도보』에 동일한 그림이 삽입되었다는 내용을 남겼다. Andreas Eckardt, 이기숙 옮김, 앞의 책, 117~118쪽; 에카르트의 고구려 고분에 관한 연구는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고구려 고분 연구와 성과: 강서대묘와 쌍영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52, 미술사학회, 2019, 13~14쪽 참조.

고려시대 석탑과 신라시대 석탑 지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림으로 그려 두 시대 석탑의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현존하지 않는 신라와 고려시대 건축물의 지붕 형식과 신라와 고려시대 석탑 지붕과의 유사성의 가능성도 유추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석탑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선구적인 시각임에는 틀림이 없다. 에카르트는 방대한 양의 석조미술을 현장 조사와 문헌을 통해 양식과 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분석한 연구를 보여주려고 하였다.⁶⁶⁾ 또한 예술적으로 뛰어난 석탑과 승탑을 분리하여 조명하였으며, 승탑과 함께 현존하는 비석이나 옛 문헌 조사를 통하여 승탑의 주인에 대한 분석까지도 하고자 하였다. 석등 부분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데 사찰에 현존하는 석등과 왕릉에 세워진 석등의 양식과 특성까지도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카르트의 석조미술 연구는 한국의 초기 석조미술의 개론서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에카르트는 『조선미술사』를 통해 한국미술을 건축, 조각과 불탑미술, 불교 조각, 회화, 도자기와 공예로 나누었고 각 분야 안에서 시대별로 보이는 특징, 양식과 미학을 찾고자 하였다. 저서에는 500점이 넘는 도판이 삽입되어 있는데, 도판 자료는 에카르트가 유물을 실견한 후 직접 그린 스케치와 수채화 그리고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자료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한국미술사 연구에서 공예예술과 석조미술은 회화나 도자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분야이다. 그러나 에카르트는 1929년 이미 『조선미술사』를 통해 공예예술을 청동 작품, 금은세공, 칠 세공, 목조, 의복과 지수 등으로 세분화시켜 조명하였다. 석조미술도 석탑, 다층탑, 승탑, 비석, 석등과 왕릉에서 보이는 석상 등으로 구분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66) Andreas Eckardt 저, 권영필 역, 앞의 책, 111쪽. 고유섭은 1932년 1월 『조선탑파(韓國塔婆) 개설』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간행한 학술잡지인 『신흥(新興)』에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고유섭이 집필한 탑파관련 논문은 모두 11편이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를 분야별로 자세히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에카르트가 소속되어있던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의 창립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을 알아보았으며 수도사들의 활동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는 각 분야별로 출판된 저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에카르트가 한국학 중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글, 한국어와 문법 분야에서 16편이 넘는 저서와 논문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는 이미특의 뒤를 이어 한국학 학자로서 한글과 한국어를 생을 마칠 때까지 강의하였던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한국인 한글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정황을 찾아보았고 한국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에카르트를 동시대 한글 학자로 인정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문학사 부분에서는 시문학과 민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에카르트는 1960년 한국문화사를 소개하기 위해 독일 뮌헨의 바이어른주 방송국에서 ‘한국시의 매력’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한국의 역사서를 근거하여 한국시문학을 시대적인 특성과 장르를 구분하여 소개한 것을 살펴보았다. 1968년 출판된 『한국문학사』를 통해 세계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학을 세심히 고찰된 것도 조명해 보았다. 에카르트의 우수한 한국문학사 연구와 성과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른 시기부터 독일 문화권에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일인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남겨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 초 당시 한국음악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에카르트는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하였다. 1930년 에카르트가 독일어로 출판한 『한국음악』은 세계 최초 한국 전통 가락을 소개한 저서이다. 1931년에는 영어로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의 음악, 가락과 춤』을 통해 한국음악 부분은 보완하고 한국의 전통 무용도 함께 소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카르트는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을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일본문화가 아닌 자주독립적인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유럽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1929년 에카르트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미술사 통사인 『조선미술사』를 출판함으로써 유럽인들에게 한국미술의 존재를 알렸다. 또한 영국에서 영어판인 *History of Korean Art*를 출판하며 독자의 폭도 넓혔다. 『조선미술사』를 통해 보여준 에카르트의 한국미술에 대한 시각은 당시 일본학자들과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서를 통해 한국은 독립적인 나라이며 문화와 예술은 높은 경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미술에도 당당한 지분이 있다는 것을 에카르트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고대 시기부터 한국은 일본에 문화예술을 전해주었다는 것도 저서의 전 분야에서 거듭 상기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하듯 에카르트는 한국학의 전 분야를 알리고자 평생 고군분투 하였다. 그리고 그가 한국학 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으나 한국학계에서 보이는 관심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현재까지 에카르트 연구에 집중된 학위논문은 2편에 불과하며, 국내학술논문은 25편 정도이다. 그리고 에카르트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단행본 8권과 연구보고서는 3편 정도로 볼 수 있다.⁶⁷⁾ 한국미술의 경우 에카르트의 한국미술에 대한 연구보다 동시대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에카르트의 한국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7) 이 정보는 2021년 6월 27일 RISS를 통해 에카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만을 모은 수치이다.

[표1]

*안드레아스 에카르트트는 천주교와 관련된 저서도 많이 출판하였다. 그러나 [표1]에는 에카르트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물이 추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

	저서·논문·기타 한국학 활동	도시: 출판사	시기
1	“Was die Koreaner erzählen” in Missionsblätter (표교지) XVI, S. 165-169. 『한국 민담』	Oberbayern: St. Ottilien, Oberbayern, Missionsverlag *〈표교지〉는 성 오틸리엔 수도회에서 출판하는 선교잡지이다.	1911/ 1912
2	Koreanische Grammatik, Choson- mundschon (조선어문법대전, 조선어문전) *승신학교 교재	Seoul: 자필	1913
3	“Koreans Sprache und Schrift und Erfindung der Buchdruckerkunst” (한국인의 언어와 글쓰기 및 인쇄 기술 발명), Geist des Ostens.	München: Verlag des Ostens Geist des Osten 명칭은 〈동방의 정신〉이며 선교잡지이다.	1913
4	“Die Arche Noahs in koreanischer Überlieferung” in Missionsblätter XVIII, S. 169-171. 『한국설화에서 보이는 노아의 방주』 (에카르트트는 1913년 7월20일부터 8월 4일 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도보로 여행하며 모운 설화들을 실었다.)	Oberbayern: St. Ottilien, Oberbayern, Missionsverlag	1913/ 1914
5	“Die koreanisch-chinesische Fibel” in Missionsblätter XVIII, S. 172-175. 『한국-천자문 입문서』	Oberbayern: St. Ottilien, Oberbayern, Missionsverlag	1913/ 1914
6	“Koreanische Sprichwörter” in Geist des Ostens I, S. 757-759. 『한국의 속담』	München: Verlag des Ostens	1913/ 1914
7	“Der Konfuzianismus in Korea” in: Hist. Polit. Blätter 『한국의 유교』	Hist. Polit. Blätter	1914
8	“Der Buddhismus in Korea” Geist des Ostens 『한국의 불교』	München: Verlag des Ostens	1915
9	“Buddhistische Reformbestrebungen in Japan” 『일본 불교개혁의 노력』	Hist. Polit. Blätter	1920
10	“Die koreanische Himmelsreligion (Tschondokyo)” 『한국의 천도교』	Weltmission (세계선교 출판)	1921
11	“Koreanische Volkspoesie. Gesang beim Reispflanzen”, in Der Gral XXI, S. 179-182 『한국 민속의 시』	München: Der Gral Der Gral는 선교잡지이며 명칭은 〈성배〉이다.	1922
12	“Koreanische Poesie”, in Der Gral XVIII, S.102-106. 『한국의 시』	München: Der Gral	1922
13	“Japanische Poesie” in Der Gral 『일본의 시』	München: Der Gral	1923
14	Koranische Konversations grammatik 『한국의 회화문법』	Heidelberg: Julius Groos	1923

	저서·논문·기타 한국학 활동	도시: 출판사	시기
15	"Der Zodiakaltierkreis in der koreanischen Kunst", 『한국미술의 황도대』	Berlin Und Leipzig: Ostasiatische zeitschrift	1925
16	"Das Gro ße Grab König Yangwon's: Ein Beitrag zur koreanischen Kunstgeschichte" 『양원왕의 왕릉(강서대묘)』	Berlin Und Leipzig: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13	1926
17	"Ginseng, die Wurzel der Unsterblichkeit", <i>P. Wilh. Schraidt - Festschrift</i> 『인삼, 불노장생의 뿌리』	Wien: P. Wilh. Schraidt (기념 논문집)	1927
18	"Der Zodiakal-Tierkreis in der koreanischen kunst des 9. Jahrhunderts" in: <i>Ostasiatische zeitschrift</i> , Neue Folge, 14 『9세기 한국미술의 황도대』	Berlin Und Leipzig: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14, S. 189-195.	1927/1 928
19	<i>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Deutsche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i> 『한국문자의 기원』	Tokyo: Deutsche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	1928
20	<i>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aktusan</i> , 『한국 민담집: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⁶⁸⁾	Oberbayern: St. Ottilien, Missionsverlag	1928
21	<i>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i> 『조선미술사』	Leipzig: K. W. Hiersemann	1929
22	<i>History Of Korean Art</i> 『조선미술사』	London: Goldston	1929
23	<i>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i> 『한글의 원천』	Tokyo:	1930
24	<i>Koranische Musik</i> 『한국음악』	Tokyo: Deutsche Gesellschaft für Natur- u. Völkerkunde Ostasiens	1930
25	<i>Korean Music</i> 『한국음악』	London: K. W. Hiersemann	1931
26	<i>Das Koreanische Sprach</i> 『한국어』	Leipzig: Mittlg. d. Ver. f. Völkerkunde	1931
27	"Das Korean. Schach" 『한국의 장기』	Leipzig: Mittlg. d. Ver. f. Völkerkunde	1931
28	"Das korean. Zahlensystem" 『한국의 숫자 체계』	Leipzig: Mittlg. d. Ver. f. Völkerkunde	1931
29	"Das Schulwesen in Korea" 『한국의 교육제도』 Promotionsschrift, Braunschweig	Braunschweig: Promotionsschrift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와 브라운슈바이크 대학, 박사학위 논문).	1931

68) Andreas Eckardt, 『한국 민담집,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aktusan*, Oberbayern: St. Ottilien, Oberbayern, Missionsverlag, 1928. 이 저서에 대한 출판연도는 1928년과 1929년과 후에 박사는 1931년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는 이 책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조선미술사』 같이 머리말에 “덕원”에서 쓴 것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출판날짜가 기록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 민담집, 한라에서 백두산까지』가 성 오틸리엔 수도회에서 출판한 것으로 보아 1928년 말 에카르트 독일 입국 직후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술사』에서 이 책에 수록된 김홍도의 <지붕이기>를 예를 들고 있어 『조선미술사』보다 이른 시기인 1928년 말로 추정하고 논지를 진행하였다.

	저서·논문·기타 한국학 활동	도시: 출판사	시기
30	"Das Koreanische Buchstabenschrift", 「한국의 문자」	Schrifttum der Erde (땅의 성서)	1932
31	"Ginseng, die geheimnisvolle Heilwurzel in Fern-ost"(극동의 신비스러운 뿌리약초, 인삼), <i>Heil- und Gewürzpflanzen</i>	Heil- und Gewürzpflanzen	1935
32	"Quelpart, die merkwürdigste Insel Ostasiens", in: <i>Zeitschr. f. Erdkunde</i>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상한 섬, 제주도」	Zeitschr. f. Erdkunde	1941
33	"Zur Kulturgeschichte Koreas: Die Ginsengwurzel" 「한국의 문화사: 인삼뿌리」, <i>Univeri-tas</i> 학술잡지 출판.	Univeri-tas	1943/1 944
34	"Sam-Ginseng in koreanischer und indogermanischer berlieferung" 「한국과 인도 게르만의 전통속에서 삼-인삼」 <i>Forschungen und Fortschritte</i> , Berlin. (*연구발표 및 진행, 베를린)	Berlin: Forschungen und Fortschritte	1948
35	"Zur Soziologie Ostasiens" (동아시아의 사회학), Vortrag im 14. intern. Soziologen-Kongreß in Rom(제 14회 인턴의 사회학의회에서 강의, 로마),	Rome: 강연	1950
36	"Das Kunstwerk der chines. Schrift(문자도(文字圖))", in: <i>Universitas</i> (*강연: 대학 강연)	Universitas	1950
37	<i>Das Buch von der großen Weisheit: Laotse by Laozi</i> 「위대한 지혜의 책: 노자」	Frankfurt am Main: Verlag August Lutzeyer	1950
38	<i>Unter dem Odong-baum, Koreanische Sagen und Märchen</i> 「오동나무 아래서: 한국의 전설과 동화」	Frankfurt/Main : Lutzeyer, cop	1950
39	<i>Wie ich Korea erlebte</i> 「내가 경험한 한국」	Frankfurt/Main: Lutzeyer	1950
40	"Die Ginsengwurzel als korean. Kulturgut" 「한국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삼」	Stuttgart: Jahrbuch des Lindenmuseums 슈투트가르트: 린덴 박물관 연감	1951
41	"Die Bergwelt in Korea" 「한국의 산」	Der Bergsteiger	1953
42	"Geist und Kultur der Koreaner" in: <i>Universitas</i>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Universitas(학술잡지 출판)	1953
43	<i>Die Ginsengwurzel: Koreanische Sagen Volkserzahlungen und Marchen</i> 「인삼: 한국의 전설과 동화」	Eisenach: Erich-Röth Verlag.	1955
44	"La Leggenda Coreana sull", Origine del Genere Umamo«, Vortrag auf Intern. Kongreß Etnografia e Folklore del Mare, Neapel. (*강연: "한국의 전설", 세계민족학과 민속학 대회, 나폴리)	Neapel: Kongreß Etnografia e Folklore del Mare	1956
45	"Kunstwerk der japan. Lyrik" 「일본의 작품-시」, in: <i>Universitas</i> 학술잡지, 출판.	Universitas	1956

	저서·논문·기타 한국학 활동	도시: 출판사	시기
46	"Zugehörigkeit des Koreanischen zur indogermanischen Sprachfamilie", Vortrag im 24. Jahrgang der <i>Zeitschrift für allgemeine Sprachkunde</i> , 『한국어의 인도-유럽어족의 귀속성』, *논문 제목과 함께 24일 강의로 기록되었다	München: Orientalisten-Kongre	1957
47	"Deutsche in Südkorea" 『남한에 있는 독일인』	Übersee Rundschau	1957
48	<i>Laotse: Unvergängliche Weisheit Glauben und Wissen</i> , 『도덕경: 불멸의 지혜 믿음과 지식』	Nr. 18 E. Reinhardt	1957
49	<i>Laotse's Gedankenwelt nach dem Tao-te King</i> 『노자 도덕경: 사상과 세계』	Baden-Badeb: Lutzeyer	1957
50	"Die mongol. Quadratschrift Paszpa im 13. Jh.", in: <i>Zeitschrift für allgemeine Schriftkunde</i> 『13세기 몽골의 정사각형 Paszpa 글꼴』	Zeitschrift für allgemeine Schriftkunde	1958
51	<i>China: Geschichte und Kultur</i> 『중국: 역사와 문화』	Baden-Baden:Verlagsbuchhandlung Heinrich Blömer	1959
52	"Große Wasserkraftprojekte in Südkorea" 『한국의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	Übersee Rundschau	1959
53	"Entwicklungsland Korea" <i>Hilfe für Entwicklungsländer</i> 『개발도상국 한국』	Bonn: Baden-Baden	1960
54	<i>Koreanica</i> (에카르트 75세 논문 헌정집)	Baden-Baden: Lutzeyer	1960
55	<i>Zauber Koreanischer Poesie</i> 『한국시의 마력』	Bayerischer: Vortrag Bayerischer Rundfunk 출판>(* 강연-독일 바이어른주 방송국)	1960
56	<i>Korea Geschichte und Kultur</i> 『한국의 역사와 문화』	Baden-Baden:Verlagsbuchhandlung Heinrich Blömer	1960
57	Japan: Geschichte und Kultur 『일본: 역사와 문화』	Bonn: Baden-Baden	1960
58	<i>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i> 『한국어 문법』	Heidelberg: J. Groos	1962
59	<i>Übungsbuch der koreanischen Sprache</i> 『한국어 연습문제집』	Heidelberg: J. Groos	1964
60	<i>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i> 『한국어 문법』	Heidelberg: J. Groos	1965
61	Studien zur koreanischen Sprache 『한국어 연구』	Heidelberg: J. Groos	1965
62	<i>Wörterbuch. Chinesisch-Koreanisch-Deutsch. Studienausgabe</i> 『중국어-한국어-독일어 사전』	Heidelberg: J. Groos	1966
63	<i>Koreanisch und Indogermanisch : Untersuchungen über die Zugehörigkeit des Koreanischen zur indogermanischen Sprachfamilie</i> 『한국어와 인도-유럽어의 연관성 연구』	Heidelberg: J. Groos	1966

	저서·논문·기타 한국학 활동	도시: 출판사	시기
64	<i>Musik, Lied, Tanz in Korea</i> 『한국의 음악, 가락과 춤』	Bonn: Bouvier	1968
65	<i>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i> 『한국문학사』	Stuttgart: Kohlhammer Verlag Berlin, Köln Maniz	1968
66	<i>Vietnam: Geschichte und Kultur</i> 『베트남: 역사와 문화』	Eurobuch-Verlag	1968
67	“Mandschurisch und Koreanisch - ein Vergleich“ (만주어와 한국어 비교), <i>Monumenta Serica</i> Vol. 28	Monumenta Serica	1969
68	<i>Wörterbuch der koreanisch-deutschen Sprache</i> 『한·독 사전』	Heidelberg: J. Groos	1969
69	<i>Koreanische Keramik</i> 『한국 도자기』	H. Bouvier	1970
70	“Koreanisch und Japanisch - ein Vergleichin”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 <i>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i> vol. 109.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	1971
71	<i>Kultur Der Nationen, Korea</i> 『한국의 문화』	Nürnberg: Glock und Lutz	1972
72	“Koreanische Lackarbeiten” (한국 옷칠), <i>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i> Vol.113.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	1973
	한국에 헌정한 심포니 작곡	*평생을 통해 총 21 심포니 작곡	
	Sinfonie der Freundschaft op.20 (우정의 심포니)		1973
	Korea-Sinfoni, op. 21 (코리아 심포니) *에카르트르는 1974년에 작곡한 (코리아 심포니)를 한국에 헌정하고 세상을 떠났다.	안드레아스 에카르트르(1884-1974)	1974

■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독일 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9.
- 고유섭, 『조선미술사 (총론편·각론편)』, 열화당, 2007.
- 권영필,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문예출판사, 2000.
- 김시덕 외,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 한국 관련 소장품 정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서울역사박물관, 『동소문별곡』, 2014.
- _____,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소장 서울사진』, 2014.
- 세키노 다다시, 심우성역, 『조선미술사』, 동문선, 2003.
- 정석배외 8인, 『한국 문화 원류와 알타이 신문화 벨트 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최헌배, 『우리말본』, 정음사, 1955.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원산교구 연대기』,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2. 논문

- 김영자, 『독일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소장 한국사진 자료에 대해서』,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소장 서울사진』, 서울역사박물관, 2014.
-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한국의 독일 선교사·독일의 한국학자 안드레 에카르트』, 『한국연구재단 (NRF)』, 2018.
- 박일영, 『한국사머니즘에 대한 외국인선교사들의 대응태도연구-파리와방전교회와 성 베네딕도회 오티리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선교정책 연구』, 『종교연구』 67, 한국종교학회, 2012.
- _____, 『독일인 선교사가 본 20세기 초 한국의 민속』,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 백 플라치도 (Placidius Berger, O.S.B.), 『한국에서의 초기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침』, 『한국교회사논문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سنزحون,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진출과 선교활동』, 『교회사연구』 2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욱낙안(Andreas Eckardt), 『제2의 조국 한국어 빛나라!』, 『신태양』 69, 신태양사, 1958.
- 이유재, 『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 생산과 교육』,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이은정·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독일어문학』 45, 한국독일어문학회, 2009.
- 조효임, 『안드레 에카르트와 『코리아십포니』』, 『음악과 민족』 8, 민족음악학회, 1994.
- 진상범, 『한·독문학의 비교문화적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2012.
- _____, 『독일에 있어서 한국민담 및 전설 독일어 번역과 창작을 통한 한국문화수용양상 고찰』, 『예술인문사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권1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 최석우,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교회사 탐구』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 최석희, 『한국 문학의 독일어 번역-한국민담을 중심으로』, 『해세연구』 13, 한국해세 학회, 2005.
-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고구려 고분 연구와 성과: 강서대묘와 쌍영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52, 미술사학회, 2019.

_____,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금강산』, 『제3회 강원학대회』,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0.

황인규, 『북한지역 고구려와 발해의 불교사찰』, 『불교연구』51, 한국불교연구원, 2019.

Albrecht Huwe, Rebecca Santelmann 영역번역, “Andre Eckardt-eine biographische Skizze (Andre Eckardt - A biographical sketch)”, 『동서문화의 만남』, 청암 권혁만교수회갑 논문집, 서울: 보성문화사, 1987.

Andreas Eckardt 저,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열화당, 2003.

_____, 이기숙 역,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살림, 2010.

_____, *A history of Korean art*, London: Edward Goldston, 1929.

Norbert Weber, 박일영·장정란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

Tschö Hyonba(최현배),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Japan in alter Zeit, Riekel, August, *Koreanica: Festschrift Professor Dr. Andre Eckardt Zum 75. Geburtstag*, Verlag August Lutzerer · Baden · Baden, 1960.

A Study on Andreas Eckardt's Research and Academic Achievement on Korean Studies

Hong Misuk*

Andreas Eckardt (1884~1974) was a scholar who created the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 in Germany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an international world-historical view, he studied the general overview of all fields within Korean studies, including Hangeul or the Korean alphabets, Korean language, grammar, culture, literature, religion, philosophy, music and art. And Eckardt achieved great academic results. His study on Korean studies was based on respect for Korean history, culture and art. With a full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Eckardt conducted his study thoroughly and completely, producing more than 100 papers and book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enabled Eckardt to conduct his research on Korean studies without much difficulty was that he was flu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his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The following could be concluded in regards to Eckardt's research on Korean studies: 1. Korea is an independent state with a long history; 2. Korea stands different from China or Japan and is a state with a unique and highly sophisticated level of culture and art and; 3. Korea, from ancient times, has disseminated art and culture to Japan. These views and arguments repetitively appear in all fields of his works on Korean studies that he published.

This study examined the founding ideology, process and purpose of entering

*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of 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 which Eckardt belonged to. In addition, monks' activities after their relocation to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Furthermore, by exploring Eckardt's study on the Hangul or the Korean alphabets, Korean language, grammar,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music and art, this study also attempts to discus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his works as a primary resource of Korean studies. Eckardt was a pioneer who created the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 in Germany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began with him and Eckardt could be viewed as the important starting milestone of Korean studies.

Key words : Andreas Eckardt, 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 Novert Weber, Sekino Tadashi, Choi Hyun Bae, *Korean Literature*, *Koranische Konversations grammatik*, *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äktusan*, *Koranische Musik*, *Korean Music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History of Korean Art*